



고우영
삼국지

三國志

글·그림 고우영

채색 고성언

<103>

※일부지역은 인쇄시정상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Blog+ <참여방법> ① 블로그를 만든 뒤 ② blogplus.net에 방문, 블로그를 등록 ③ 인터넷 핫이슈를 블로그에 쓰면 됩니다.

직장에서 팀원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 6

A: (등 뒤에서 장난 걸며) 뭐해?

B: (인터넷 뒤적이며) 아, 원화에 필요한 자료를...

A: 아, 정말. 야한 사이트 찾고 있는거지? 일종해 일종.

예전 회사에서 팀원들끼리 워낙 친하다보니 농담도 많이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일종해'였다. 물론 서로 친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 아는 상황이라면 별 상관 없겠으나 문제는 아무런 그런 경우라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전엔 멋모르고 했던 말인데 철야 근무 다음 날 그 말 그대로 돌려받았더니 별 생각이 다들 없던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장에서 팀원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일종해라.

몇 번 듣다보면 '내가 정말 일 안 하는 놈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러는 년 얼마나 일하는데?'라는 식의 역공이 펼쳐지기도 한다.

2. 힘들게 뭐 있어. 그 일만 하면 되잖아.

설령 그 업무를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 하더라도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닐진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 하면 기분이 상한다. 보통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항변하는 경우와 조용히 인정하는 경우다. 전자는 항변이 성공해 상대가 인정했다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며 후자는 자포자기한 상태이거나 섬섬함을 느끼는 경우다.

3. 또 사고했지?

사고 일으키는 존재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정말 상대가 사고를 쳤어도 이 말은 하지 않는다. 가뜰이나 사고 쳐서 미안해 죽겠는데 확인사살하듯 말을 해

버리면 기가 팍 죽는다. 반대로 자기 문제가 아닌데 이런 말 들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짜증나기 마련이다. '너는 사고 안 치나 두고보자'라는 식이 될 수도 있다.

4. 그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 금방 끝나잖아.

저런 말 들은 후 금방 끝내봐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반대로 오래 걸리면 자기가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꼴이다. '너한테 어려운 일 아니잖아?'라는 식의 상대능력을 함부로 평가하러 들면 곤란하다.

5. 알지도 못하면서

팀원의 전문가적인 지식에 상처를 입히는 가장 직접적인 말이다. 팀원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 대해 식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설령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 아는 척 하다가 들은 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분야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자괴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상대에게 이 말을 돌려줄 기회를 기다리는 경우도 나뉜다.

6. 명령어투

명령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 한국사람은 기질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것 같다. 이럴 땐 청유형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해줄 수 있어요?'라던가 '~해줄래요?' 혹은 '부탁 좀 할게요.' 등.

부록: 힘아니는 말

- 역시 XX군(XX는 상대의 이름) 혹은 역시 대단해! '역시'에 감세를 주는 걸 잊지 말자. 단, 너무 호들갑을 떨면 놀리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 진짜 감탄한 듯한 표정과 어조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 네 덕분에 살았다



어려운 말 아니면서 상대 MP가 오르는 말 중 하나다. 보통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기쁨에 휩싸여 더 해줄 게 없어 살피게 된다.

3. 좋은데요. 괜찮군요. 혹은 센스가 있네요.

상대가 결과물을 갖고 왔을 때 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 만약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전체적으로 좋은 한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고쳐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상대가 좋게 될 것이다.

4. 수고 많았어요.

흔한 말이지만 듣기 힘든 말이기도 하고 그만큼 효과 좋은 말이기도 하다. 별생각 없이, 툭 던지듯이 하면 효과 0. 4. 부사로 주면서 '진짜' '정말' 등을 첨가해서 약간 천천히 말해주자.

coolpeace (www.coolpeace.co.kr)

지송의 행운의 운세 필짜와 직업상담 2만개 17지송 지송미래연구소 제공 060-700-3663 (음력 9월 3일) 10월 1일

쥐띠 48년생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만 인간관계의 갈등에 있다 60년생 남한대 유혹당하면 크게 후회되는 일이 있다 72년생 마음을 비우고 양보하는 자세로 나가면 해가 없을 운 84년생 재물을 쓰는데 인색하지 말라. 주일 몇배의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말띠 42년생 무모한 일에 손대지만 오랜 어려움을 겪지 않을것이다 54년생 외출 중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고 가능한 내일을 삼가라 66년생 반은 근심되고 반은 좋은일이 있으니 우물쭈물하지 말라 78년생 사람들과 트러블이 있었으니 화합에 노력하라
소띠 49년생 오래 이끌어온 약속 등이 의외로 취소될 수도 있다 61년생 명예와 재물이 모두 이르면 영통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73년생 재단이 없어 어디에서나 평화로운 분위기 형성될 것이다 85년생 노력에 비해 감정의 이익이 생기는 운세이다	양띠 43년생 운세는 순조로우며 기대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이다 55년생 일은 많고 몸은 고달프니 욕심을 버리고 분수에 맞게 행하라 67년생 중혼한 물건이 망가질 수 있으니 물거품이나 손질할때 주의하라 79년생 남들과 다들 일이 있다면 조금 늦게 생각해라
범띠 50년생 스트레스를 받게되지만 표나게 짜증스런 모습 보이지 마시오 62년생 귀인이 희망적인 약속을 해주었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임 74년생 운수가 불리하니 만사를 주의하라 86년생 일이 뜻에 어긋나는 날이면 친구가 청을 하면 응하라	원숭이띠 44년생 무언가 욕심나는 일이 있다면도 친구에게 양보하라 56년생 새로운 물건 구입하면 뒤에 큰 이익이 될것이다 68년생 무에서 유가 생기는 운 비운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중하고 불운을 새로운 것을 모색하면 굶어 부스럼을 만든 적이 된다
토끼띠 51년생 일만 바쁘고 얻어지는 실속이 없으며 건강에 신경쓰라 63년생 분수를 지켜 욕심내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것이다 75년생 주변사람과 불화가 있었으니 자중 또 자중 하라 87년생 무언가 보이지 않는 재단이 일어날 징조가 있으니 조심하라	닭띠 45년생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이 있으므로 모험성이 있는 일에도 성공이 가능하다 57년생 옛것을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면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69년생 특별한 지적활동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다 81년생 작은 것을 욕심 내어 큰 것을 잃을 수있어
용띠 40년생 나쁜일이 연류되고 건강문제로 지리에 누울수도 있다 52년생 인내와 양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누구든 간에 충절을 피하라 64년생 일의 진행이 순조로우며 무리가 없는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76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남이 부러워할만한 일을 성공시킬 수 있음	개띠 46년생 친구나 가까운 사이에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수도 있다 58년생 재물을 원하는 재물이 생기고 명예를 원하는 명예가 생긴다 70년생 새롭게 일을 착수하지 마라 이렇듯 약속이 너무 쉽다 82년생 부상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뱀띠 41년생 주변사람들과 불화의 징조가 보이니 주의하라 53년생 무언가 작음을 받아들이고 실재할 수 있겠다 65년생 이익은 없어도 장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니 인심을 모든 소원을 이를 기회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활발히 움직여라	돼지띠 47년생 곤욕을 당할 수 있으니 천한 벗이나 선배의 조언을 받으라 59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옛것을 지키면 기쁜 일이 생김 71년생 모든 면에 특별히 근심을 만한 일은 없으나 건강을 생활가 우려 83년생 수고한 끝에 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운세상담 역술인과 직업상담 saju8.co.kr 060-700-3663 17지송 (원)미래예측학과 박사과정 지점상담은 2번+고유번호 주소 : 도봉구 병든로48-48 5층 02-77-0968 30호(100%예약제)